

익산시 살림규모 역대 최고치 경신

내년도 정부예산안 6382억원 반영... 지난해 대비 160억원 증액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익산시 국비 6,382억원이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반영된 익산시 정부예산안 중 최고 금액으로 지난해 정부예산안 6,222억원에 비해서도 16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익산시는 2015년 국가예산 6,179억원, 2016년 국가예산 6,229억원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

년 6,503억원의 역대 최고 국가예산에 확보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2018년 국가예산도 6,600억원을 넘겨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다.

익산시는 2018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하였고, 올해 3월부터 전 부서가 중앙부처, 국회 등에 일제출장 등을 실시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국비가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140억원), △왕궁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126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공사(136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1단계) 운영 지원(120억원),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 개설사업(30억원) 등 118건의 계속사업과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15억원), △익산 중소기업 물류센터 증축사업(10억원), △공

공보건기관 기반 확충사업(10억원), △용포관광지 가족단위 레저시설 설치사업(9억원), △하수처리기 감량화 사업(5억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2억원) 등 18건의 신규사업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1일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며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 반영 되었거나 감액된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가예산 추가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내 고장 상품애용'으로 경기불황 극복

군산시, 직원 560여명 참석 지역경제 활성화 결의대회

군산시는 5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공소 읍면동장 및 직원 5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 고장 상품 애용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장기기간의 경기불황과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 등의 외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내 고장 상품 애용'에 대한 실천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적극 이용 ▲주말 군산에서 보내기 ▲지역 업체와 '내 고장 생산 물품' 우선 애용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전한 소비생활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군산시는 5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 고장 상품 애용 결의대회'를 실시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문용득 지역경제과장은 "시민들의 건전한 소비행동은 내수 활성화와 침체된 군산경제 회복의 원동력이므로 내 고장 상품 애용 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시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지원하여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8월말에 관내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에 내 고장 상품 애용 소비촉진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과 시에서 발간한 '내 고장 상품 가이드북'을 발송한 데 이어,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으로 시민경제 회복을 위한 범시민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서-대한환경보건의원 등 소외계층 희망나눔 MOU

군산경찰서는 5일 오전 경찰서장실에서 (재)대한환경보건의원(이사장 강성용), (주)카페리츠(대표 이인혜)와 탈북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민,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이들이 보다 건강한 삶과 안정

적인 사회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재)대한환경보건의원, (주)카페리츠에서는 이들에게 유기농커피 800박스를 후원하며, (재)대한환경보건의원에서는 군산술안방병원을 통하여 탈북민 등에 대해 의료지원, (주)카페리츠에서는 탈북청소년 등 불우 청소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 등 자력 증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두 업체는 각각 탈북민,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으로 환경성질환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방 치료 지원을 꾸준히 진

행해 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원료를 국내에 제공하는 기업으로 저소득 청소년 바리스타 양성 교육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원석 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다문화가정·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익산농협은 5일 오전 김병욱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 대의원, 여성단체임원 등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떡 방앗간 개점식을 진행했다.

익산농협 '떡 방앗간' 문 활짝

수익창출위해 새 모델 발굴 쌀 판로확보 효과사업 기대

농협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모델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익산농협(조합장 김병욱)이 드디어 전국 농협에서 처음으로 떡 방앗간 개점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5일 오전 10시30분 익산농협은 오랫동안 구상과 검토를 거쳐 분점 뒤에 문을 연 떡 방앗간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개점식에는 김병욱 조합장을 비롯해 임원, 대의원, 여성단체임원 등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해 개점을 축하했다.

이 떡 방앗간은 취임 초기부터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모델 발굴

에 고심, 수많은 아이디어 중 타당성과 현실가능성 있는 것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는 김병욱 조합장의 대표작품이다.

익산농협은 이 떡 방앗간을 통해 주품목인 쌀의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전라상품 가능성이 있는 숙배 및 가공을 통해 알짜 효과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욱 조합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를 견뎌 더욱 단단해져 조합원들을 위한 방패가 되고 그들이 되어 모두가 잘 사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여 판매하는 생산·가공·유통전 문농협으로 나가겠다"고 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환경·일자리 문제 특단의 노력 필요"

정현을 익산시장, 간부회의서 현안사업 가시적 성과 주문

정현을 익산시장(사진)이 본격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시장운영 보고회에서 정 시장은 간부공무원들에게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직원들의 노고에 힘입어 인구늘리기, 기업유치 등에서 의미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이 되려면 더욱 가속도를 내야 한다"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또한 환경, 일자리, 민생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동북아 식품허브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며 면 식품산업단지

조기 분양이 선결과제"라면서 기업유치에도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현을 시장은 최근까지 정부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분주한 행보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역대 최고치인 6,382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 이번 주부터는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을 돌며 현장행정 및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용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